

2020.03.30

에이치엘비 (028300)

한국 최고의 바이오 기업을 향해

화끈하게 몸집을 키우는 중.

일본의 다케다, 아스텔라스, 다이이췌산교, 에자이 등은 미국/유럽의 바이오텍들을 인수하면서 10여년만에 글로벌 50대 제약사까지 성장하였다. 에이치엘비도 같은 방법으로 M&A를 통해 빠르게 바이오사업을 확장하고 있다. 최근 미국의 이뮤노믹테라퓨틱스, 항암제 Apealea등을 인수했으며, 올해 더 많은 인수 소식이 연이어 터질 전망이다. 글로벌 바이오 후발주자로서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M&A는 필수불가결하다. M&A를 하지 않고서는 사실상 신약개발의 시간과 비용, 실패를 감당할 수도 없다. 신라젠과 헬릭스미스는 시가총액 5조원이 넘었던 기회가 있었으나 아무것도 해보지 못하고 주저앉았다. 그러나 에이치엘비는 다르다. 최선을 다해서 선진국의 경험과 인프라를 흡수하며 몸집을 키우고 있다. M&A를 쉬지 않는 에이치엘비는 어떤 한국 바이오기업보다 빠르게 성장할 것으로 확신한다.

‘이뮤노믹’ 보다 우수한 코스닥 바이오텍 있나요?

에이치엘비가 인수한 이뮤노믹의 신약후보물질들이 상당히 강력해 보인다. 대표 파이프라인은 교모세포종 치료제 ITI-1000이다. 교모세포종은 표준치료법인 TMZ+방사선치료의 mOS가 약 14개월에 불과하며, 5년 생존률이 5%미만인 최악의 암종이다. ITI-1000은 임상 1상에서 무려 mOS 41.1개월, mPFS 25.3개월의 결과를 냈다. 또한 환자 11명중 4명이 5년 이상 생존하였으며, 6명이 3년 이상 생존하였다. 걸리면 보통 수개월내 사망하는 교모세포종 환자들의 목숨을 여럿 살리는 드라마틱한 효과를 봤다. ITI-1000은 현재 FDA 임상 2상 진행중이며, 150명 중 120명 이상 모집이 완료되었다. 올해 하반기 중간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며 결과가 1상과 유사할 경우 에이치엘비의 기업가치가 대폭 증가할 뿐만 아니라, 전세계 교모세포종의 희망이 될 것이다. 한국에도 교모세포종을 주력으로 개발하고 있는 기업들이 몇몇 있으나, 과연 이보다 우수하다고 말할 수 있는 파이프라인이 있을까? 어찌 보면 에이치엘비는 한국 교모세포종 개발 기업들이 수년간 쌓아온 위치를 단숨에 따라잡는 셈이다. 쓸데없는 편견만 갖지 않는다면 매우 우수한 기업임에 틀림없다. 이뮤노믹은 향후 에이치엘비의 가치를 크게 늘려줄 자산으로 판단된다.

리보세라닙 하반기 NDA신청.

에이치엘비의 주력 자산인 리보세라닙은 하반기 위암 3/4차 요법으로 NDA를 신청할 예정이다. 리보세라닙+캄렐리주맵 간암임상 3상은 25%정도 진행되었으며 내년 연말 결과발표를 목표로 하고 있다. 추가적으로 새로 인수한 세포독성항암제 Apealea는 지난 1월 유럽에서 판매허가를 획득하였으며, 4월 FDA Pre NDA미팅이 예정되어 있다. 5년 내 5개의 항암제를 출시하겠다는 동사의 목표가 점점 가시화되고 있다. 어느새 한국의 리딩 제약/바이오 기업이 되어가고 있다.

(십억원,연결)	2015A	2016A	2017A	2018A	2019P
매출액	38	30	23	36	38
영업이익	-6	-21	-26	-29	-49
영업이익률	-15.5%	-69.7%	-113.5%	-81.0%	-126.8%
순이익[지배]	13	-13	-17	25	-95
EPS(원)	382	-370	-459	674	-4,777
PER(배)	56.6	(35.5)	(84.2)	118.5	(24.1)
PBR	8.7	5.3	18.1	18.0	42.0
EV/EVITA	51.0	(21.9)	(50.1)	115.2	(96.8)
ROE(%)	15.2%	-19.5%	-17.9%	8.4%	-95.4%

자료: 에이치엘비, 한양증권

N.R

목표주가(12M)	-
현재주가(2020.03.27)	85,500원
상승여력	-

제약/바이오 오병용 Analyst

byoh@hygood.co.kr

02-3770-5344

주가지표

KOSPI(03/27)	1,718P
KOSDAQ(03/27)	523P
현재주가(03/27)	85,500원
시가총액	3,697십억원
총발행주식수	4,324만주
120일 평균거래대금	2,221억원
52주 최고주가	213,900원
52주 최저주가	21,800원
유동주식비율	80.9%
외국인지분율(%)	9.25%
주요주주	진양곤 외 5인 (12.9%)

상대주가차트



- 올해 수천억원 규모의 투자 예정.

에이치엘비가 자금력과 지분스왑을 이용해 바이오 사업을 무섭게 확장하고 있다. 지난 2/19일 미국의 바이오텍 이뮤노믹테라퓨틱스(IMMUNOMIC Therapeutics)을 인수한다고 공시했으며, 곧이어 리보세라닙 원 개발자인 폴첸박사로부터 리보세라닙의 전세계 권리(로열티 수취 권리)를 인수했다. 그리고 3/25일에는 스웨덴 오아스미아 파마(Oasmia Pharmaceutical)로부터 항암제 Apealea의 글로벌 권리를 인수했다고 발표했다. 이와 같은 공격적인 M&A는 동사의 자금력과 시가총액에서 비롯된다. 에이치엘비는 '19년 연말(연결) 기준 현금성자산 408억원 및 각종 금융자산 약 440억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자회사 에이치엘비생명과학은 현금성자산 1,089억원 및 금융자산 약 1,150억원을 보유하고 있다. 현재도 그룹에서 가용할 수 있는 자금이 3천억원이 넘는데, 최근 약 3,200억원의 유상증자를 또 공시했다. 수천억의 자금이 바이오 M&A와 임상자금에 소요될 예정이며, 올해 각종 투자 발표가 연이어 터질 것으로 예상된다.

- 바이오는 돈이 만드는 사업이다.

바이오 산업 성장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사실상 자금이다. 돈이 없으면 신약개발에 필요한 막대한 비용과 수십년의 시간을 감당할 수 없다. 또한 99%에 이르는 신약 실패확률을 버텨낼 수도 없다. 그래서 바이오 기업은 더욱 합쳐야 하고, 어떻게든 몸집을 더 키워내야 한다. 선진국에서 성공한 바이오 기업들은 자본시장에서 인기있는 기업이었고, 끊임없이 인수합병을 했으며, 파트너들과 신사업에 투자한 기업이었다. 그러나 한국의 대표적인 제약사들은 성장을 위해 몸집을 늘리기보다는 매출의 일부를 신약에 투자하는 정도에 그치고 있다. 왜 일본 제약사들이 M&A에 사활을 걸었는지 생각해 보아야 한다. 어느 업종보다 규모가 중요한 업종이 바이오다. 10년간 여러 개의 글로벌 빅파마를 배출한 일본의 사례를 참고해야 한다. 유한양행이나 한미약품이 에이치엘비처럼 투자할 수 있을까? 과거에도 못했고 앞으로도 아닐 것이다. 아마 그것이 한국에 빅파마가 없는 이유일 것이다.

- 일본 제약사들은 M&A로 10년만에 빅파마가 되었다.

일본 제약사 지난 10년 성장의 핵심은 역시 해외 기업 M&A였다. 일본 1위 제약사 다케다나는 '08년 밀레니엄파마, '11년 나이코메드, '12년 URL파마, '13년 인비라겐, '17년 아리아드파마, '18년 지네틱스 등을 인수하면서 빅파마로 성장했다. 일본 2위 제약사 아스텔라스는 '05년 야마노우치, 후지사와 야쿠히이 합병하며 탄생하였으며, '07년 아젠시스, '10년 OSI, '16년 오카타, Ganymed, '17년 Ogede, '18년 퀘테라 등을 인수하면서 마찬가지로 빅파마가 되었다. 반면 한국 제약 업계에는 제대로 된 M&A건 자체가 없었다. 대웅제약의 한울바이오파마 인수 정도가 유일하다. 바이오 업계에서는 M&A없이 성장할 수 없다. 특히 이제 시작하는 한국 바이오가 글로벌에서 경쟁하기 위해서는 선진국의 경험과 인프라를 단숨에 획득할 수 있는 M&A가 필수불가결하다.

거대한 자본시장이 있는 한국에서 에이치엘비의 자금조달과 M&A능력은 그 자체가 경쟁력이다. M&A를 쉬지 않는 에이치엘비가 한국 바이오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할 것을 의심하지 않는다.

바이오투약을 전공한 CEO들의 문제점은 본인의 기술 개발에만 몰두한다는 점이다. 한국 대부분의 바이오 기업이 그렇다. 시가총액 5조원이 넘는 헬릭스미스와 신라젠은 그 자금력을 활용해보지도 못하고 주저앉았다. 반면 에이치엘비는 바이오 전공자가 아닌 CEO의 강력한 리더십을 바탕으로 기회를 놓치지 않고 M&A를 통해 성장하고 있다. 한국의 자본시장을 바이오 산업에 제대로 활용하는 기업은 에이치엘비 뿐이다. 에이치엘비가 반드시 성공한다고 말할 수는 없으나, 한국에서 빅파마가 나오려면 반드시 에이치엘비처럼 해야만 한다.

- 자회사 이뮤노믹의 교모세포종 신약. 상당히 강력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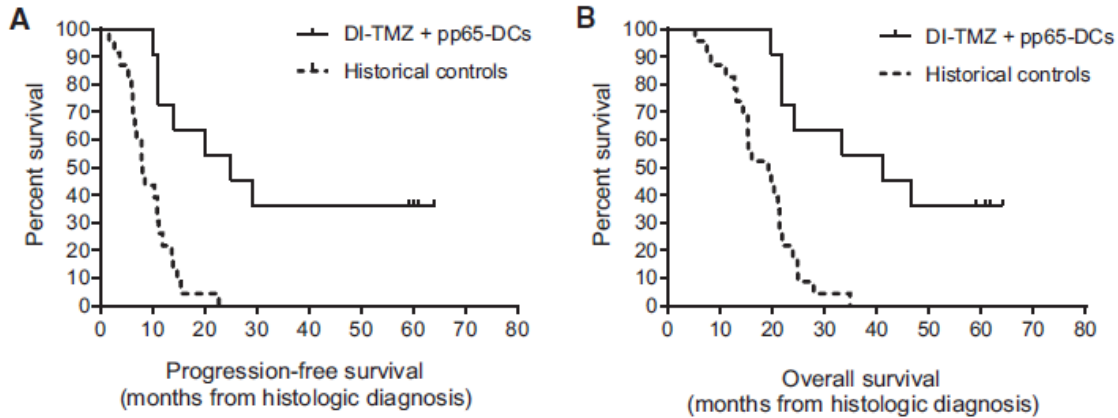
이번에 동사가 인수한 이뮤노믹이란 기업의 경쟁력이 정말 상당해 보인다. 기존의 코스닥 한국기업들과 비교하면 더 명확하다. 이뮤노믹의 대표 파이프라인은 뇌종양 치료제 ITI-1000이다. 현재 미국 임상 2상중이며, 150명 모집 중 120명 이상 모집이 완료되었다. 임상 1상 데이터가 매우 압도적인데, 전체 11명 대상으로 교모세포종의 1차 표준치료제인 TMZ(temozolomide)와 동사의 ITI-1000을 병용투여 했을 때, OS 중간값이 41.1개월이었고, PFS중간값도 25.3개월에 달했다. 교모세포종의 기존 치료법인 TMZ+방사선치료의 OS 중간값이 약 14.6개월밖에 안된다는 것에 비하면 상당한 결과다. 또한 교모세포종은 5년 생존률이 5% 미만인 매우 악성 암종이다. 그러나 동사 임상 1상에서 11명중 4명(36.4%)의 환자가 5년이상 생존하였고 3년이상 생존한 환자는 54.5%에 달했다. 5년이상 생존한 4명은 해당 논문이 나온 '17년까지도 생존하고 있었다.

[도표 1] ITI-1000 임상 1상 결과(1)

Patient	Sex	Age, y	Race	KPS	WHO score	IDH-1/2 mutation	MGMT promoter methylation	PFS (diagnosis)	OS (diagnosis)	RPA predicted class	RPA O-E
1	M	55	W	90	1	-	-	10.1	21.7	IV	10.6
2	M	55	W	80	1	-	-	64.0 ^a	64.0 ^b	IV	52.9
3	M	53	W	90	1	N/A	-	61.9 ^a	61.9 ^b	IV	50.8
4	M	47	H	100	0	-	+	60.7 ^a	60.7 ^b	III	42.8
5	F	60	W	100	0	-	+	59.0 ^a	59.0 ^b	IV	47.9
6	F	55	W	90	1	-	-	20.0	33.4	IV	22.3
7	M	67	W	90	1	-	+	25.3	46.5	IV	35.4
8	F	63	W	80	1	-	+	11.6	24.2	IV	13.1
9	M	57	W	90	1	-	+	29.2	41.1	IV	30
10	M	55	W	80	1	-	-	14.3	21.6	IV	10.5
11	M	59	W	80	1	-	-	11.0	19.7	IV	8.6
Median		55		90	1			25.3	41.1	IV	30

출처: 한양증권 리서치센터

[도표 2] ITI-1000 임상 1상 결과(2)



출처: 한양증권 리서치센터

교모세포종은 기본적으로 걸리면 죽는 병이라고 알려져 있다. 치료제라고 해봐야 '03년 출시된 TMZ가 전부다. 동사 치료제는 면역항암제인 만큼 드라마틱한 효능을 보이는 것으로 보인다. Abbvie, BMS, Tocagen 등이 교모세포종 임상에서 줄줄이 실패하고 있다. 동사가 올해 하반기 발표할 2상 중간결과에서 임상 1상과 같은 결과 도출 시 동사 기업가치가 급증할 뿐만 아니라, 뇌종양 시장이 뒤 흔들릴 수 있다.

ITI-1001은 자가 수지상세포 백신이다. 교모세포종 발병의 원인이 되는 CMV(거대세포바이러스)의 pp65라는 항원을 수지상세포로 타겟하는 방식이다. 동사는 임상 2상 이후 FDA 혁신치료제 (Breakthrough Therapy)를 받아 조건부 시판허가를 신청한다는 계획이다.

- 이뮤노믹은 웬만한 코스닥 바이오텍보다 경쟁력이 있다.

한국에도 교모세포종 치료제를 주력으로 개발하는 회사들이 있다. 녹십자셀, 파멧신, 코미팜 등이 있으나, ITI-1000만큼 파괴력 있는 교모세포종 파이프라인은 찾기 쉽지 않다. 어찌보면 에이치엘비는 한국 기업들이 수년간 교모세포종을 연구한 결과물을 단숨에 따라잡은 셈이다. 또한 이뮤노믹은 '18년 World Vaccine Congress에서 최우수 치료백신 기업으로 선정된 바 있으며, Astellas에 알려지 치료제를 총 \$370m규모 기술수출을 했고 그중 이미 \$315m의 마일스톤을 수취한 기업이다. 투자자들이 쓸데없는 편견만 갖지 않는다면 이뮤노믹은 매우 파괴력있는 바이오텍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번 M&A로 에이치엘비는 이뮤노믹이 가진 존스홉킨스, 듀크, 하버드, 플로리다대학의 네트워크 R/D경험을 한번에 확보했다. 좋은 딜로 평가할 수 있겠다.

- 핵심자산인 리보세라닙 개발은 순조롭게 진행 중.

리보세라닙은 지난해 위암 임상 3상을 종료하고 FDA와 Pre NDA미팅을 끝냈으며, 올해 하반기 3차 치료제와 4차치료제로 동시에 NDA를 신청할 예정이다. 내년 허가를 기대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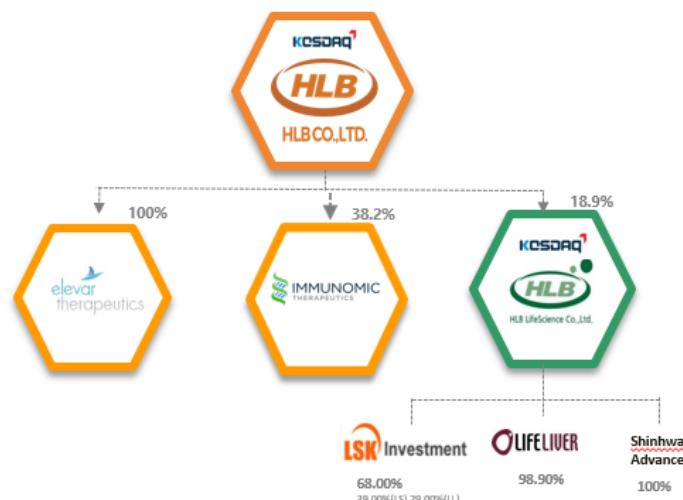
간암 1차요법 대상 리보세라닙+캠렐리주맙 병용임상 3상은 650명 모집 중 약 25%가 완료된 것으로 보이며 내년 연말 타라인 발표를 목표로 진행중이다. 이 외에도 파클리탁셀+리보세라닙의 위암 2차요법 임상 2상, 롬서프 병용의 대장암 임상 2상, 옵디보 및 키트루다 병용임상 등이 순조롭게 진행 중이다. 추가적으로 항서제약의 캠렐리주맙+리보세라닙 중국 임상 3상들이 종료되고 있다. 따라서 캠렐리주맙+리보세라닙 병용요법 글로벌 임상이 올해도 몇 가지 더 추가될 전망이다.

[도표 3] 리보세라닙 임상 현황

Therapy	Indication	Preclinical	Phase I	Phase II	Phase III	Approval
Monotherapy	3 rd /4 th Line Stomach					
Taxane Combination	2 nd Line Stomach					
Lonsurf® Combination	3 rd /4 th Line Colorectal					
Camrelizumab Combination	1 st Line Hepatocellular					
Nivolumab Combination	Bone & Soft Tissue					
Monotherapy	1 st Line Head & Neck					

출처: 한양증권 리서치센터

[도표 4] 에이치엘비 그룹 지배구조



출처: 한양증권 리서치센터

요약 재무제표

(단위: 십억원)

Income statement	2015A	2016A	2017A	2018A	2019P	Balance sheet	2015A	2016A	2017A	2018A	2019P
매출액	38	30	23	36	38	유동자산	30	27	35	117	90
매출원가	32	26	21	30	34	재고자산	5	4	4	4	4
매출총이익	6	4	2	6	4	단기금융자산	14	10	20	73	74
매출총이익률(%)	15.7%	14.2%	9.5%	17.9%	10.2%	매출채권및기타채권	6	4	4	9	10
판매비와관리비등	12	25	28	36	53	현금및현금성자산	4	9	7	30	0
기타영업손익	0	0	0	0	0	비유동자산	155	160	153	187	213
영업이익	-6	-21	-26	-29	-49	유형자산	11	11	10	13	11
영업이익률(%)	-15.5%	-69.7%	-113.5%	-81.0%	-126.8%	무형자산	131	131	127	134	133
조정영업이익	-6	-21	-26	-29	-49	투자자산	10	15	13	38	65
EBITDA	15	-21	-28	27	-52	자산총계	185	187	188	304	302
EBITDA 마진율(%)	38.0%	-70.5%	-122.2%	73.9%	-135.6%	유동부채	24	15	42	21	21
조정 EBITDA	-4	-19	-24	-28	-47	단기차입금	7	6	3	6	6
순금융손익	-3	2	-8	18	-73	매입채무및기타채무	7	7	9	9	10
이자손익	-2	0	-4	-12	-74	비유동부채	46	47	32	74	224
외화관련손익	0	0	0	0	0	사채	0	6	0	27	177
기타영업외손익	-5	-3	-1	-4	-7	장기차입금	5	0	4	5	5
종속기업및관계기업관련손익	24	-1	2	29	2	부채총계	71	63	75	95	245
법인세차감전계속사업손익	11	-23	-33	14	-127	지배주주지분	85	89	77	175	55
당기순이익	10	-23	-21	14	-127	자본금	17	18	18	20	19
당기순이익률(%)	27.2%	-77.1%	-92.7%	37.4%	-331.3%	자본및이익잉여금	82	83	73	169	42
지배지분순이익	13	-13	-17	25	-95	기타자본	-14	-13	-13	-15	-15
비지배지분순이익	-2	-10	-5	-12	-33	비지배지분	30	35	36	35	2
총포괄이익	11	-23	-24	19	-119	자본총계	114	124	114	210	5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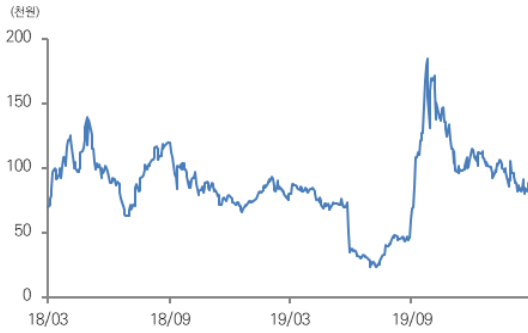
주 : K-IFRS 연결 기준 / 조정영업이익=매출총이익-판관비

Cash flow statement	2015A	2016A	2017A	2018A	2019P	Valuation Indicator	2015A	2016A	2017A	2018A	2019P
영업활동으로인한현금흐름	1	-10	-19	-29	-149	Per Share (원)					
당기순이익	10	-23	-21	14	-127	EPS(당기순이익 기준)	316	-652	-593	360	-6,421
현금유출이없는비용및수익	-14	9	0	-37	53	EPS(지배순이익 기준)	382	-370	-459	674	-4,777
유형자산상각비	2	1	1	1	1	BPS(자본총계 기준)	3,330	3,457	3,124	5,323	2,836
무형자산상각비	0	0	0	0	0	BPS(지배지분 기준)	2,478	2,487	2,134	4,449	2,737
기타	-16	7	-1	-39	52	DPS(보통주)	0	0	0	0	0
영업활동관련자산부채변동	4	4	1	-6	-1	Multiples (배)					
매출채권및기타채권의감소	1	2	0	-2	-1	PER(당기순이익 기준)	68.4	-20.2	-65.2	222.0	-17.9
재고자산의감소	2	1	0	1	0	PER(지배순이익 기준)	56.6	-35.5	-84.2	118.5	-24.1
매입채무및기타채무의증가	0	-1	0	0	0	PBR(자본총계 기준)	6.5	3.8	12.4	15.0	40.5
기타	0	2	2	-4	-1	PBR(지배지분 기준)	8.7	5.3	18.1	18.0	42.0
이자, 배당, 법인세 및 중단현금흐름	0	0	1	0	-74	EV/EBITDA (발표 기준)	51.0	-21.9	-50.1	115.2	-96.8
투자활동으로인한현금흐름	-55	-3	-13	-28	-10	Financial Ratio	2015A	2016A	2017A	2018A	2019P
투자자산의 감소(증가)	-5	-4	2	7	-27	성장성(%)					
유형자산의 감소	0	0	0	1	0	매출액증가율	3.4%	-21.6%	-23.7%	57.3%	6.2%
유형자산의 증가(CAPEX)	-3	-2	-2	-1	0	영업이익증가율	-1746.5%	252.2%	24.3%	12.3%	66.2%
무형자산의 감소(증가)	-1	-1	0	0	0	EPS(당기순이익 기준) 증가율	354.2%	-306.5%	9.1%	160.7%	-1884.4%
단기금융자산의감소(증가)	-8	4	-10	-54	-1	EPS(지배기준) 증가율	440.8%	-197.0%	-24.0%	246.9%	-808.3%
기타	-38	-1	-2	18	18	EBITDA(발표기준) 증가율	811.9%	-245.3%	-32.4%	195.1%	-294.7%
이자, 배당, 법인세 및 중단현금흐름	0	0	0	0	0	수익성(%)					
재무활동으로인한현금흐름	48	18	30	80	175	ROE(당기순이익 기준)	15.2%	-19.5%	-17.9%	8.4%	-95.4%
장기차입금의증가(감소)	-1	0	0	0	0	ROE(지배순이익 기준)	23.3%	-15.2%	-19.9%	20.1%	-82.4%
사채의증가(감소)	7	0	28	55	150	ROIC	40.0%	-14.5%	-21.6%	-19.6%	-32.4%
자본의 증가(감소)	42	0	0	0	0	ROA	8.7%	-12.5%	-11.4%	5.5%	-42.0%
기타	0	18	2	26	25	배당수익률	0.0%	0.0%	0.0%	0.0%	0.0%
이자, 배당, 법인세 및 중단현금흐름	0	0	0	0	0	안전성(%)					
기타현금흐름	0	0	0	0	-46	부채비율	61.9%	50.5%	65.5%	45.1%	426.9%
현금의 증가	-6	5	-2	23	-30	순차입금비용(자본총계 대비)	3.7%	-4.5%	8.1%	-23.0%	228.2%
기초현금	11	4	9	7	30	이자보상비율	-2.1%	-22.6%	-6.2%	-2.3%	-0.5%
기말현금	4	9	7	30	0						

자료 : 에이치엘비, 한양증권

TP Trend

투자의견 비율공시



구분	매수	종립	매도
비율	90.5%	9.5%	

투자의견 및 목표가 등 차이

종목명	코드	날짜	투자의견	목표주가(12M)	과리율	
에이치엘비	028300	20/03/30	N.R	-	-	-

Compliance Notice

- 본 자료 발간일 현재 동 주식 및 주식관련사채, 스톡옵션, 개별주식옵션 등을 본인 또는 배우자의 재산으로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본 자료 발간일 현재 동사는 회사채 지급보증, 인수계약 체결, 계열회사 관계 또는 M&A 업무수행, 발행주식 총수의 1%이상 보유 등 중대한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 본 자료는 당사 홈페이지에 공표되었으며, 홈페이지 공표 이전에 특정기관에 사전 제공 된 사실이 없습니다.
 -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작성자:오병용)
 - 기업 투자 의견

매수	향후 12개월간 15% 이상 상승 예상
중립	향후 12개월간 +15 ~ -15% 내 변동 예상
매도	향후 12개월간 15% 이상 하락 예상
 - 산업 투자 의견

비중확대	향후 12개월간 산업지수상승률이 시장수익률 대비 초과 상승 예상
중립	향후 12개월간 산업지수상승률이 시장수익률과 유사한 수준 예상
비중축소	향후 12개월간 산업지수상승률이 시장수익률 대비 하회 예상

당시는 투자 의견 전망 기간을 2017년 9월 1일부터 6개월에서 12개월로 변경하였습니다.

이 조사자료는 고객의 투자에 참고가 될 수 있는 각종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이 조사자료는 당사의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어진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는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종목선택이나 투자시기에 대한 최종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이 조사자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증권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 될 수 없습니다.



한양증권 점포현황

www.hygood.co.kr

본 점	(02)3770-5000	서울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6길 7 한양증권빌딩
송파RM센터	(02)419-2100	서울 송파구 가락로 183 한양APT상가 2층
광진금융센터	(02)2294-2211	서울 광진구 아차산로 355 타워더모스트 광진아크로텔 4층
안산지점	(031)486-3311	경기 안산시 단원구 광덕대로 264 한양증권빌딩 2층
인천지점	(032)461-4433	인천 남동구 백범로 132 만수프라자빌딩 1층

본 자료는 고객의 투자를 유도할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 아니라 고객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참고자료입니다. 본 자료는 분석담당자가 신뢰할 만 하다고 판단하는 자료와 정보에 의거하여 만들어진 것이지만, 당사와 분석담당자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본 자료를 참고한 고객의 투자결정은 전적으로 고객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이루어져야 하며, 당사는 본 자료의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일체의 투자행위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또한 본 자료는 당사 고객에게만 제공되는 자료로 당사의 동의 없이 본 자료를 무단으로 복제, 전송, 인용, 배포하는 행위는 법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